개성과 유머를 더한 만화로 고전소설을 쉽게 읽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 만화형 소설(그 ◎ **동물 농장** 래픽 노블)로 출간됐다.

절대 권력의 이면을 뛰어난 은유와 날카로 운 풍자로 묘사한 '동물 농장'은 우리 시대 최 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뉴스 위크'선정 세계 최고의 책 100선에 선정됐으 며, 서울대학교·카이스트 등 많은 대학이 필독 서로 꼽는다.

원작은 동물을 통해 소비에트 체제를 비판 하는 우화 소설이다. 작가 조지 오웰은 사회 의 불평등과 권위적인 정부에 불만을 느껴 모 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지만,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소비에트의 몇 몇 지도자가 황제처럼 권력을 독차지하고 민 중을 억압했다. 이에 조지 오웰은 크게 실망 해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 은 소설 '동물 농장'을 집필했다. 그러나 단순 히 사회주의만을 비판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민낯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했다.

출판사 측은 "소설이 출간된 지 약 7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지도층의 부패, 차별 등 모순 으로 가득하며, 여전히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 권력을 향한 날카로운 은유는 현재까지 독자에게 울림을 준다"고 설 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무리 울림을 주는 유명한 소 설일지라도 자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 다. 작가는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읽는 부담을

조지오웰 지음 / 백대승 만화 / 김욱동 해설 아름드리미디어 / 232쪽 / 2만 7000원



70년 전 권력 향한 날카로운 은유 현재까지 독자에게 울림 주고있어 동물 성격 한눈에 알아보게 그려

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있는 독자들에게 소설속 촘촘히 들어찬 문장은 부담스럽게 느 껴질 수 있다"며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읽는 부담을 줄이고 캐릭터의 개성과 유머를 더해 서 누구나 쉽게 고전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림과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왕후심청'에도 참여한 그림책 삽화가 백대승 작가가 담당했





줄였고, 캐릭터의 개성과 유머를 더해서 누구 나 쉽게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소설을 만화로 만들면서 권력 맛에 취한 돼 지 나폴레옹은 더욱 표독스럽게, 충실한 시민 을 대표하는 복서는 진중하게, 간사한 스퀼러 는 얄미운 얼굴로 그려 각각의 동물들의 성격 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작가는 만화 속 돼지와 인간이 싸우는 모습 을 다른 동물들이 눈을 번뜩이며 바라보고 있 는 장면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불평등한 세상 에 눈을 감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책에는 원작 소설이 쓰인 1940년대 시대 배 경, 조지 오웰이 어떤 사람인지 등 작품의 이 해를 돕는 해설이 담겼다.

해설은 영미문학 전문가 김욱동 서강대 명 예교수가 맡았다.

서 교수는 "오늘날에도 전체주의는 이름과 모습을 달리하여 살아 숨 쉬고 있다. 단순히 정 치 제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라며 "국가의 구성원인 개 인도 얼마든지 전체주의자가 될 수 있다. 모두 가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조지 오웰이 꿈꾸었 던 진정한 '동물 농장'의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글=유연석 기자, 그림=아름드리미디어 제공

'책고집'에서 함께 열하일기 완독해요 (인문독서공동체)

정기강좌 시즌2 개최, 과학북토크도 27일부터 23회 강연, 수강료 2만 원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가 대표로 있는 인문독서공동체 책고집(수원 팔달구)이 오는 27일부터 '2022정기강좌 시즌2'를 개최한다.

이번 2022정기강좌 시즌2는 '과학북토크'(8 회), 박수밀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는 '열하일 기 완독 클럽'(10회), 조성길 시인의 '시 깊이 읽 기 강좌'(5회) 등 총 23회 강연이 진행된다.

'과학북토크'는 ▲김항배(태양계가 200쪽의 책이라면) ▲김현철(강력의 탄생) ▲윤정인(걱 정 많은 어른들을 위한 화학 이야기) ▲심채 경(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김준(쓸모 없는 것들이 우리를 구할 거야) ▲김태호(오답 이라는 해답) ▲최지범(개미의 수학) ▲전현우 (거대도시 서울 철도) 순으로 오는 27일부터 은 무료.

11월 15일까지 열린다.

'열하일기 완독 클럽'은 박수밀 한양대 교수 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종 강 후에는 중국 현지의 열하일기 코스를 여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조길성 시인의 '시 깊이 읽기'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된다.

최준영 책고집 대표는 "정기강좌 시즌1에 보 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시즌2를 기획하게 되었 다"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날이 높아지는 수 원 시민의 향학열을 추수하기 위해 책고집은 앞으로도 계속 알찬 강좌를 진행할 것이다"라 고 포부를 밝혔다.

책고집에서만 대면으로 진행되는 '시 깊이 읽기'를 제외한 모든 강좌는 대면과 비대면 동 시에 진행된다. 수강료는 2만 원, 대중투자(크 라우드 펀딩) 후원자 및 수강권을 소지한 사람 유연석 기자

신간소개

배성민 지음 / 빨간소금 / 216쪽 / 1만 3000원



책은 신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114일간 농 성 투쟁 기록이자 풋내 기 노조 활동가의 현장 일기다.

2021년 1월 신라대학교 는 학내 청소노동자 51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위기에 이르자 취해진 조치였다. 청소노동자들은 해고에 맞서 대학 본부를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시작했고 114일간 농

성 끝에 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성 노동운동가인 그들이 오랜 시간 익혀온 더욱 개성 있게 표현했다.

'현장의 지식과 지혜'를 기록했다. 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시대를 저격하라

옌니 스트룀스테스 지음 / 이유진 옮김 푸른숲주니어 / 176쪽 / 1만 4800원



'시대를 저격하라'는 스웨덴의 유명 언론인이 자 유니세프 친선 대사 인 저자가 성차별, 사회 적 약자, 인종주의, 건강 과 교육 불평등, 환경 위 기 등 화제의 중심이 된

청소년들의 삶을 조명했다.

책은 신항로 개척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세계사와 인류가 맞닥뜨린 모순을 한자 리에 모아 보여주는 담화 지식 교양서의 성격 저자는 신입 노조 조직부장으로서 겪은 을 띤다. 이야기마다 스웨덴 삽화 작가 베아 114일간의 농성장 일상과 청소노동자이자 여 타 부크트의 삽화로 각 인물이 던진 화두를

책 속 자신의 작은 보폭에서 인류의 큰 도 저자는 책을 통해 지방대 위기 책임을 학 약을 이끌어낸 이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내에서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 사회적 한계나 편견 앞에 부딪혔을 때 지침서 가 되어줄 것이다.

◎ 척화냐 개화냐 조선의 마지막 승부수

이광희·손주현 지음 / 푸른숲주니어 176쪽 / 1만 4800원



책은 조선의 끝자락이 라고 할 수 있는 개화기 50여 년의 시간 동안 조 선의 운명을 바꾼 사건 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를 상세하게 담았다. 저자는 독자가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해 각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짚어 낼 수 있도록 토론회, 인터뷰, 반성문, 삽 화 등 다양하고 기억에 남기 쉬운 방식으로 책 을 구성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척화가 옳 았는지, 개화가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당시 조선 사람들이 겪은 사건들을 척화와 개화 두 가지 시각으로 서술했다.

역사가 주는 의미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로 가져와 교훈을 얻는 데 있다. 책은 조 선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유연석 기자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여러분께서 경기공동모금회에 보내주신 성금은 절망 속에 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착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いらつ学 コトスト大ちょくせる

참여방법

- 성금 :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무통장 입금 : 농협/143-01-092152/경기공동모금회
- 성품 :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쌀, 연탄, 김치, 난방용품 등 기부